

경상도 읍치의 역사적 경관 조사 연구

A Survey Research on the Historical Landscape of Eup Settlements in Gyeongsangdo Region

김덕현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학부 지리전공 교수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정의와 필요성

이 연구는 경상도 지역의 71개 조선시대 군·현 읍치(邑治)의 경관에 대한 현장 조사이다. 조선시대 군·현 읍치 소재지의 다수는 현재에도 지방 도시의 도심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한국 도시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도시 정체성 상실, 거주 환경의 질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생태학적 정책으로 읍치 경관의 적절한 복원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연구는 읍치 경관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발굴 확인하여 지도화 하고, 의미를 해석하며, 이를 종합하여 각 읍치의 경관 개성을 포착하는 현지 조사 연구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는 조선시대 경상도 각 읍치의 역사적 경관을 복원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한국은 20세기 일 백년 간 격렬한 사회적 공간적 변화를 겪었다. 그 전반기는 일본 제국주의 강점 하에서 사회경제적 수탈과 문화 전통의 단절이었고, 후반기는 동족상잔의 전쟁이 가져온 치참한 파괴와 그에 이어진 급속한 도시화였다. 대다수 한국 도시들은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으로 인한 정통성 단절과 경제 개발기의 급속한 도시 팽창에 의하여 역사적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도시이며, 시멘트와 매연으로 뒤덮인 환경 불량 도시가 되어 있다.

새로운 도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지방자치의 시행, '삶의 질'에 대한 시민사회의 관심 증대, 그리고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의하여 분출되고 있다. 새로운 도시 환경은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도시 정체성의 확립과 쾌적한 도시 생활을 보장하는 공간 환경의 구축으로 집약된다. 도시 정체성과 쾌적한 환경이라는 새로운 도시 환경은 역사적 문화적 상징성과 생태학적 건강성을 통합적으로 갖추고 있는 읍치의 전통 경관을 적절하게 복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읍치 의 경관 복원에 이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2) 선행 연구와 연구의 독창성

읍 취락의 역사적 경관에 관한 연구들이 특히 1980년대 이후 지리학·역사학·조경학·건축학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연구는 한국의 역사적 도시 경관이 대체로 인류의 원형적 경관 형성 원리, 그리고 문화적 규범적 원리로서 동아시아의 풍수설과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의 도성제(都城制)가 한국의 자연 환경에 맞도록 변용된 것으로 본다. 즉, 전 산업 도시의 원초적 도시 경관 형성 원리는 '종교적 가치'와 '통치 위계적 가치'이다. 특히 동양에서 주례고공기 도성제도에서 제시된 기하학적 위계 형태라는 원초적 도시경관이 산과 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풍수설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아 조선식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전형성'을 전제로 한 연역적 하향식 연구가 기존 연구의 일반적 특징이다. 하향식 연구는 단순한 조사 항목으로 도식적 결론을 도출하여 각 읍 취락의 개성을 발굴하지 못하는 경향이다. 특히 독특한 자연 환경과 역사에 따라 형성된 읍치의 다양한 생태학적·문화적 경관을 조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 연구는 다양한 공간 규모에서 표출되는 경관 개성과 장소의 의미와 정체성을 포착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상향식 연구를 지향한다. 이를 통하여 경상도 각 읍치의 고유한 문화적·생태적 경관 개성을 발굴하여, 지방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쾌적한 도시 환경 구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1) 71개 경상도 군·현 전체에 대한 단계별 현장 조사 연구

이 연구의 특성은 첫째, 조선시대 경상도 71개 군·현 전체에 대한 현장 조사 연구이다. 둘째, 경상도 읍치 경관에 대하여 역사적 도시가 나타내는 전형성을 추출하기보다는 보다는, 개별 읍치 경관의 특성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문헌에 기초한 연역적 하향적 추론보다는 실증적 현장 조사에 근거한 귀납적 상향적 조사로 읍치 경관의 구성 내용을 구체적 자료로 작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 경상도 71개 군·현을 4단계, 3개년으로 나누어 조사 연구하고자 한다(<표 1> 참조).

| 구분 | 조사 방식 | 조사 내용 | 연구 단계 | 비고 |
|----------------|----------------------|---|--|------------------------------------|
| 1차 년도 | 1차 답사 (현장 확인) | 문헌과 현장의 비교를 통한 읍치 경관 요소의 분포 상태 | 수집(읍치 경관 요소) | 경상도 71개 군·현 방문 전수 조사 |
| 2차 년도 (전반기) | 2차 답사 (현장 실측) | 현지 관찰, 실측, 지도화를 통한 경관 요소의 자료화 | 기록과 지도화 (수집된 읍치 경관) | 전수 조사 (경관 요소의 위치, 영역, 형태 특성) |
| 2차 년도 (후반기) | 3차 답사 (관련자 면담) | 자료화된 읍치 경관에 대한 해석과 확인을 위한 면담, 집담회 | 의미 해석과 확인 (조사 내용의 적실성) | 전수 조사 경관 요소의 정확성 확인과 그 의미 해석 |
| 3차 년도 | 4차 답사 및 학술 회의 | 집중 답사와 전문가 의견 종합 | 집중 연구와 환류 연구 (경관의 개성 발굴 및 복원 가능성 탐색) | 집중적 비교 연구 (주목되는 군·현) |

<표 1> 단계별 현장 조사 연구 계획

2) 읍치 경관을 입지·영역·장소 3개 공간 차원으로 조사하고 의미를 해석

연구를 체계화하고 연구 성과 활용에 기여하도록 조사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조사 항목을 1차적으로 경관 인식의 공간적 규모에 따라, 점과 선으로 나타나는 입지, 면과 범위로 나타나는 영역, 건물이나 물리적 개체로 파악되는 장소적 경관이라는 3개 차원으로 분류한다. 2차적 분류로는 경관을 순수한 외적 형태 속성으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상징성·애착·평가가 개입하는 내적 의미 속성 정도에 따라 분류한다. 따라서 조사 항목은 1단계로 입지, 영역(구조), 장소적 경관등 3개 공간적 규모로 구분되고, 다시 2단계로 분류된다. 즉, 입지는 자연적, 인문적 입지; 영역은 객관적, 실존적 영역; 장소적 경관은 이데올로기적·정치적 법적·경제적 경관으로 조사 항목을 세분한다. 다양한 공간 규모와 의미에 따른 조사 지표 분류는 경상도 각 읍치 경관의 개성을 발굴하고 보다 풍요한 의미 해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조사 항목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세분하는 것은 연구의 체계를 잡기 위한 것뿐 아니라, 연구가 추구하는 도시 정체성과 환경의 쾌적성이라는 도시 생활의 '삶의 질'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경관은 시각적이고 장소적 현상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입지, 범위(영역), 형태를 가진다. 다른 한편 배열 방식이나 건축 형태로 표현되는 장소적 경관은 기능적인 동시에 상징적 의미를 전달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 행동에 참여시키거나 배제하고 정체화(identify)하는 대상이 된다. 경관이 주는 장소

정체감은 형태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물리적 경관과 사람이 맺어온 관련성에서 만들어지는 진정성(authenticity)의 속성이기 때문에 경관의 물리적 외양보다는 진정성에 주목해야 한다. 읍치 경관의 개성을 발굴하고 경관 복원을 통한 도시정체성 제고라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적실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의미 관련성을 조사 지표로 도입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연구의 내용을 우선 경관을 어떤 공간 규모(scale)에서 보느냐에 따라 분류하고, 다음에는 주민의 의미부여 행위 혹은 주관적 문화적 평가의 개입 정도와 내용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공간 규모와 관련자의 평가의 개입 정도를 고려하면, 입지·영역·상징은 경관의 속성이지만, 관찰되는 경관의 공간 규모와 주관적 평가 개입 정도를 차별적으로 반영하는 고찰의 상이한 차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입지에서 영역으로, 그리고 다시 장소적 경관으로 관찰의 초점을 차례로 이동하면서 조망되는 입지 경관, 지각되는 영역 경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 장소적 경관 등 3개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고찰되는 경관의 공간 규모는 축소되고 주관적 평가의 개입 정도는 심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입지 경관 자체도 객관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관찰자의 의미 부여라는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어 있고, 영역과 장소적 경관도 그렇다. 따라서 입지·영역·장소라는 경관 연구의 틀은 관찰하는 경관을 분류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역사적 경관을 효과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다양한 차원의 관찰 초점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 전통 취락에서 나타나는 개성을 입지·영역·장소라는 경관에서 찾아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공간 환경 무대를 설정하는 방식(산-수-사람의 장소적 결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하천)과 산, 거주지가 입지·영역·장소의 3개 경관 차원에서 각각 어떻게 결합하는가는 한국 고유의 생태와 문화의 결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읍치 경관의 문화생태학적 내용을 이해하고 현대적 적실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귀납적 연구 방식이 불가피하다.

현대 한국 도시의 정체성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읍치의 장소적 경관에 대한 조사가 유교적인 것에 매몰되지 않고, 그 문화적 중층성에 주목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읍치는 오랜 역사적 자취가 누적된 중심적 생활 공간으로 생활(경제적 행위); 권력(정치적 법적 행위); 종교(상징 행위)가 조화되어 공존하는 곳이며, 이는 장소적 경관으로 표출·재현된다. 특히 조선시대 군·현의 읍치는 현대의 지방 도시와 달리 다양한 종교적 문화적 상징 공간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한국 전통 취락의 종교적 상징 공간은 샤머니즘·불교·유교 등 상이한 문화가 중층적으로 공존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위의 논의에 입각하여 읍치 경관 조사 항목을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 <표 2.>와 같다.

| 고찰의 차원 | 경관 유형 | 조사 항목 |
|--------|----------|-----------------------|
| 입지 | 산계 및 수경 | 산경 내맥, 진산과 주산, 수계와 수리 |
| | 산수 미학 | 형승 묘사 |
| | 좌향 | 주요 경관의 요소의 좌향 |
| | 읍치의 위계 | 대도호부, 목, 도호부, 군, 현 |
| | 행정 구역 규모 | 속현, 월경지 |
| 영역 | 형국 | 풍수적 국면 구성 |
| | 범위 | 읍성과 읍내면 |
| | 경계 | 비보, 압송, 조산, 입수, 입석 |
| | 구역 분화 | 기능공간 분화, 계급별 거주지 |
| 장소적 경관 | 종교적 장소 | 3단 1사, 사찰, |
| | 권위적 장소 | 객사, 동헌, 향청, 형옥 |
| | 교육적 장소 | 향교, 사원, 사당 |
| | 문화적 장소 | 누각, 대 |
| | 경제적 장소 | 도로, 시장, 교량, 창고, 역원 |

<표 2> 읍치 경관 조사 항목 분류

3. 연구결과의 활용 방안

1) 조선시대 읍치 경관의 복원을 위한 기초 자료

읍치의 역사적 경관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경관의 진정성을 설명함으로써 읍치 경관의 개성과 의미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 연구 자료는 읍치 경관 복원의 기초 자료가 된다.

2) 읍치경관 자료의 활용 방안

첫째, 전통 문화 경관 복원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 특히 최근 도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심에 유서 깊은 역사적 장소를 복원하고 이를 공공 장소로 확보하자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읍치 경관 조사 자료는 이러한 역사적 경관과 공공 장소의 복원에 가장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된다.

둘째, 21세기 도시에서 요구되는 생태 경관 축 조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21세기형 지방 도시에서 요구되는 생태 경관의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이론적 역사적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읍치 경관에 반영된 자연-문화의 통합적 전통은 생태적 축으로서의 산경(山經)과 수경(水經); 생태적 적지(ecological land suitability)로서 풍수 입지; 생태 환경의 보완 요소로서 비보(裨補)라는 문화 생태학 혹은 경관생태학적 내용이다. 따라서 이 조사 연구 자료는 향후 각 지방 도시의 생태 환경 개선에 있어 자연 조건에 적합한 생태 축의 설정 및 경관 요소의 생태적 최적 입지 그리고 녹지 네트워크의 조성 등에 있어 유효한 이론적인 지침과 실제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셋째, 생활에서 여가활동이 중시되고, 여가활동에서 문화 체험 관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읍치 경관의 복원은 지방 도시의 역사적 문화 관광자원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서 실시되는 향토의 역사·문화·지리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